

수출기업, REACH 대응 “이상무”

국내 수출기업이 EU(유럽연합)의 신 화학물질 관리제도 REACH(Registration, Evaluation & Authorization of Chemicals) 잘 대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가 EU의 REACH 규정이 발효된 2009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국가별 위반사례 122건을 분석한 결과, 국내기업들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.

반면, 중국산은 92건이 적발돼 전체의 75.4%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인디아,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가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분석됐다.

제품별로는 어린이용 완구류의 위반 건수가 72건(59.1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의류 및 섬유제품(22건, 18.1%), 화학제품(16건, 13.1%)이 뒤를 이었다.

REACH는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ECHA(유럽화학물질청)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에 화학물질 및 원료로 사용한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0/1/25>